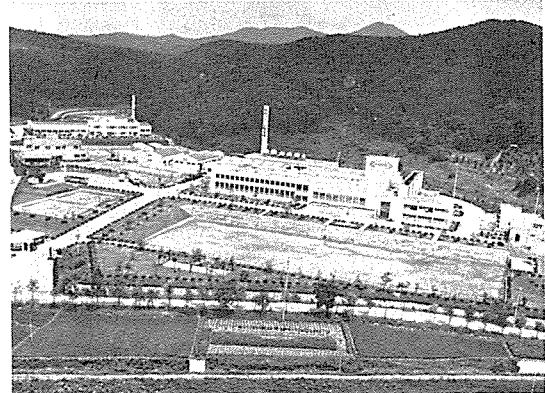


건강사회건설을 기업이념으로 한 국내 발효유 업계의 선두주자



한국야쿠르트 평택공장 전경

하국야쿠르트유업(주)는 「건강사회건설」을 기업이념으로 1969년에 설립되었다.

1971년 국내최초의 유산균 발효유 「야쿠르트」를 선보인 이래 한국 유산균업계의 선두주자로 그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건전기업으로 정진한다는 일념에 1만여 전 종사원이 매진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는 최근 「팔도라면」의 시장정착에 힘입어 또 한번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것은 꾸준한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한 대고객서비스와, 공익사업의 확장이라 말할 수 있다.

야쿠르트는 제품의 특성상 야쿠르트아줌마를 통한 방문판매형식의 유통채널을 쭉하고 있다.

또 「손에서 손으로, 차게 생산하여 차게 운반, 차게 전달」이란 저온관리 유통시스템을 특징으로 하여 중간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없애고 신선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 점은 한국야쿠르트가 상품을 판매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자 강점이기도 하다.

하국야쿠르트는 서울대학교 축산대 교수와 건국대 축산대학장을 역임한 윤쾌병(尹快炳) 사장이 일본야쿠르트와 기술제휴로 출범했다.

1970년에 첫 제품을 출하했으나 발효유에 대한 황무지나 다름없던 국내에서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3년째인 72년부터 혹자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74년에는 기존의 80cc 용량을 65cc로 출신 전략이 적중하며 성장기에 돌입, 1일 70여만본의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79년에는 1일 180여만본에 이르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안정권에 돌입, 1일 200여만본 이상의 판매량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1일 450여만본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90년대 초반 까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82년에는 유전공학 연구분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균주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유산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 여망과 종합식품회사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83년에는 팔도라면을 생산 시판, 기존의 야쿠르트시장을 기반으로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꾸준한 제품개발과 함께 점진적인 판매증진에 힘입어 그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한편 국가시책인 낙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원료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충남 안면도에 대단위 목장을 개발, 이미 100만평의 초지를 조성하여 1,500여두의 젖소와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하국야쿠르트는 두말할 것 없이 대표상품으로 「야쿠르트」를 꼽을 수 있다.

그의 「팔도」브랜드의 각종 라면과 스낵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상품 몇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유제품 : 야쿠르트(국내 유산균발효유의 대명사격인 본 상품은 특수유산균을 이용, 그 맛과 질의 독특함을 자랑하고 있다. 용량은 65ml, 가격은 1本당 73원으로 점포에선 판매하지 않고 부인판매망을 통해 가정에 배달 판매만 하고 있다.)

라면 : 「팔도」라는 토탈 브랜드를 사용, 국내 도시락타입의 라면으로는 원조인 팔도 도시락, 팔도 설렁탕, 간짜장, 비빔면 팔도 Q라면, 팔도 국시방 등 15가지가 넘는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스낵 : 놀부밥 I, II, 참치맛깡, 눈치밥, 골뱅이깡, 타코스-콘칩, 후라잉포테토 I, II 등 특히 오랫동안 연구(개발)한 농후(호상) 발효유인 「야쿠르트 슈퍼-100」은 순수한 국내 기술진의 작품으로 곧 시판할 예정이다. 국내 발효유 시장에 또한번의 선풍을 일으킬 이 슈퍼-100은 스칠렌수지 용기에 용량은 100ml, 소비자가격은 300원이다.

각 공장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필품 등을 판매, 그 수익금을 종업원 복지에 활용하는 협동조합(구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식당은 물론 테니스코트, 샤워실, 도서실,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은 물론 월 1회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마련한 선물을 전달 축하하고 있다.

사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으로는 매해 직급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급대상자를 위한 관리능력배양 등 다단계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사원에게는 해외시장파악을

겸해 견문을 넓혀주고자 해외연수를시키고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원에게는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게는 해외유학, 실적이 뛰어나고 장기근속한 판매점(야쿠르트아줌마)들에게 해마다 일본관광의 특전도 부여하고 있다.

한 국야쿠르트의 기업이윤은 그들의 4대공익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즉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재생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75년에 자생적으로 발족된 사랑의 손길펴기운동, 어린 새싹들에게 과학을 탐구하는 연구심을 길러주어 과학입국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자라나는 어린 이들의 정서생활과 글짓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어린이건강글짓기대회, 유산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 및 국내 유전자공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하는 국제학술세미나—이것이 한국야쿠르트가 마련하는 4대공익사업이다.

건강사회건설과 사회공익이라는 대 명제 아래 추진중인 이 사업들은 많은결실을 맺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야쿠르트의 대외적인 자랑거리는 꽤이나 많다. 그중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78년 상공의 날에는 전국최초로 식품업계를 대표하여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81년 보건의 날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였고, 84년 3월에는 불우이웃돕기(사랑의 손길펴기운동)의 사회공헌으로 청룡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88년 제21회 과학의 날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바 있다.

그러나 야쿠르트가족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회공익과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정진할 것이다.

